



[산업]
현대차
서울-평창 190km
자율주행 성공
05

[금융]
6개 금융 앱을 하나로
생활금융플랫폼
‘신한 쓸’
06



공연 준비·극단 운영·아르바이트까지... “24시간 쪼갠 생활 힘들지만 관객과의 교감 행복해”



새벽을 여는 사람들 // 연극배우 오성택

연극배우 오성택씨(42)의 하루는 일반적으로 오전 6시경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공연을 앞두거나 공연이 진행 중일 때에는 연습과 구상 등으로 일과를 시작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등을 하기 위해서다.

오씨는 “공연이 잡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이’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공연을 하는 도중에도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럴 때는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기도 하다”고 밝혔다.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처럼 연극배우로서의 삶이 그리 녹록치 않다. 고정적이지 않은 수입, 높지 않은 수입 수준 등은 공연에만 매달리지 못하게 한다.

실제로 15년차 연극배우인 오씨는 연극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지금까지 공연기간 외에는 아르바이트를 계속해 왔으며, 때문에 해보지 않은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라고 한다.

이렇듯 ‘어려운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이유를 묻자 오씨는 처음 배우의 꿈을 꾸었던 때의 이야기로 말을 시작했다.

오씨는 “사춘기 때 교회에서 연기를 하면서 매력을 느낀 게 시작이었다. 그러다 대학교 입학 후 연극반에서 가입해서 연기를 하던 중, ‘원스 어폰 어 타임인 아메리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그 때 로버트 드니로가 마지막에 자신을 배반했던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보여주던 눈빛을 보면서 나도 저런 눈빛을 소유한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프로 배우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힘들게 가고 있지만 막상 무대에 오르고 상대 배우들과 관객과 교감이 이뤄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은 그동안의 모든 것을 보상하는 느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뭔가 만나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연극배우로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라고 설명하면서, “연기를 하다가 상대방 배우와 눈이 마주친 순간 서로 아주 진한 교감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공연이 다 끝나고 종파티를 진

사춘기 시절 교회서 연기 접해
15년간 연극 배우 인생 이어가

불규칙하고 높지 않은 수입에
공연 외 시간 아르바이트로 채워

관객 만날 때 보상받는 기분 들어
도전적인 작품 만드는 것이 꿈

행하던 중 다같이 함께 했음을 느낄 때, 연습 중에 잘 안 풀려서 치열하게 작품 이야기를 하면서 훌쩍 지나간 새벽의 시간을 우리가 모두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관객들이 놀라운 반응으로 작품을 맞아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어 계속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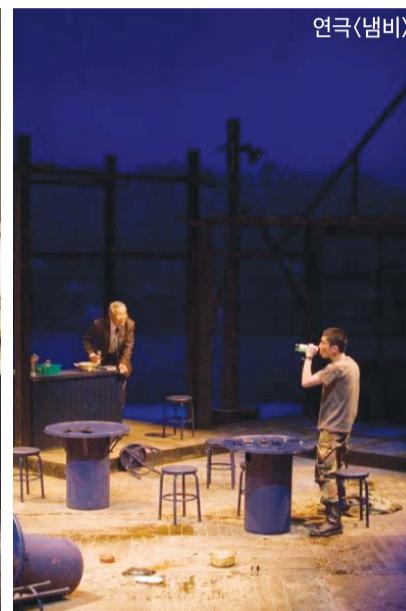
오씨가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생활하고 있는 것은 비단 아르바이트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연극배우이면서 동시에 극단 세즈헤브의 부대표도 겸하고 있다.

세즈헤브는 올해로 3년차에 들어선 극단이며, 이 극단의 ‘엄니인력사람들’, ‘오셀로의 식탁’, ‘밤이 깊었습니다’, ‘어느 행인두부의 마음’ 등 공연은 연극계와 대중들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오씨는 “동료들과 함께 만든 극단의 미래를 위하여 여러 가지 계획들을 의논하고 있다”며 “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작업을 해나가면서 뜻이 맞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시대를 좀 더 예리하게 고민해 보고 그 고민의 끝에서 나온 시선으로 솔직하지만 새로운 도전적인 작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함께 해주시고, 그 ‘함께함’ 속에서 솔직한 비판과 응원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오씨에게 연극배우로서의 이야기를 더 물었다. 이에 그는 연습실을 대여해서 앞둔 공연을 연습하고, 공연을 1~3일 앞둔 상황에서 극장 사용이 가



연극〈해다가블러〉



배우 오성택이 여러가지 연극 무대에서 연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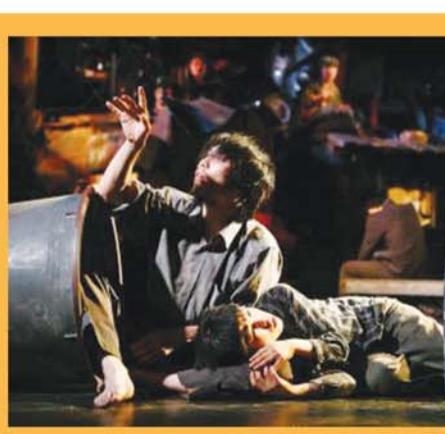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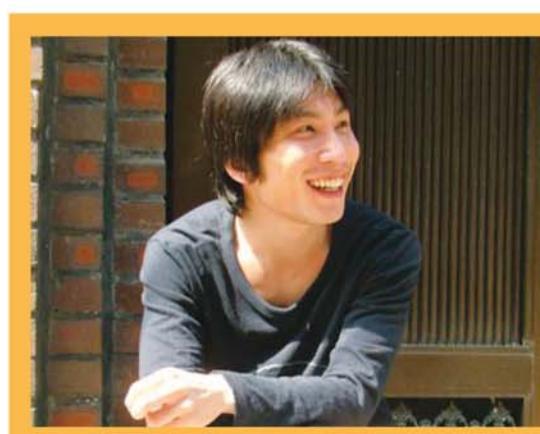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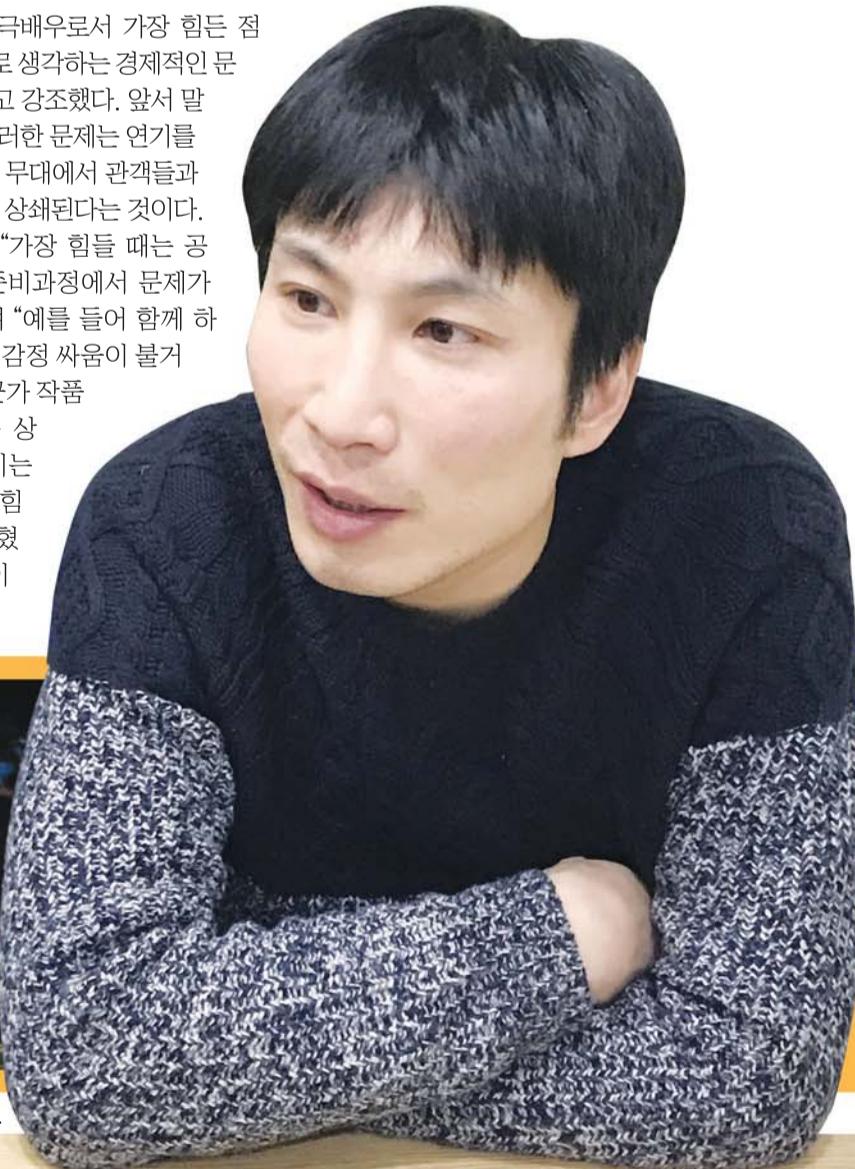
능할 경우 무대·조명 등을 맞춰 연습을 하는 과정들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연극배우로서 가장 힘든 점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러한 문제는 연기를 하는 동안에,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날 때 이미 상쇄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장 힘들 때는 공연과 공연 준비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라며 “예를 들어 함께 하던 팀원끼리 감정 싸움이 불거져 그 종 누군가 작품을 그만두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이 제일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만큼 모두에게 상처로 남는 순간은 없는 것 같다”고 아쉬워 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metroseoul.co.kr



연극배우 오성택씨가 메트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